

아동·가족학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 교육자, 연구자, 실무담당자 중심 -

A Critique of Professional Missions About Child and Family:
Educators, researchers, practitioners

김 영 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Kim, Yeo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 Colle. of Educa., Gyeongsang Natl. Univ.

Abstract

In this critique, the mission of child/family professionals is reidentified as educator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ssist child and family in coping with a changing society, educators need to give serious attention to such issues as self-formation for the individuals and human relations for the families. The missions of researchers are shifted from quantitative to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mphases. The micro - and macro - intervention are seen as primary two roles for the practitioners. Implications of these missions are discussed in terms of specific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Consequentl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bound for child/family professionals.

I. 서론

가정학을 학문의 모체로 하는 아동·가족학은 가정학이 가정생활의 효과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는 기능주의에서 벗어나 가정생활의 주체인 인간·가족에 중점을 두는 역할주의로 역점을 두면서 그 위치와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가정학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가족주의(Familism)를 통합하여 어떻게 하면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주의의 최대 목표인 자아실현을 달성하면서도 가족주의의 최대 목표인 협동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에 그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아동 자체에 역점을 두어 온 아동학의 관점에 전환을 가져와 아동을 가족 구성원의 한 인간환경 단위로 보는 아동·가족학의 새로운 학문적 시각을 등장시키게 하였다. 즉 아동·가족의 학문적 초점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가족구성원 자체에 있는 것이다(조복희, 1986; Arcus, 1992; Berado,

1987).

더우기 가정학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과거 가정학은 인간의 신체·생리적 욕구 충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 현대 시대 사조의 변화는 인간의 정신적 욕구 충족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적 욕구 충족에 관련된 아동·가족학은 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Bronfenbrenner, 1988; Fuchs & Reklis,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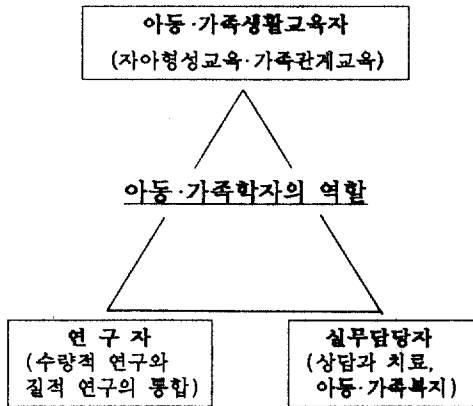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의 사회정치학 교수인 Yeheskel (1988)은 과학이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하여 제 3의 과학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역설한 바있다. 제 3의 과학은 정책과학으로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과학을 말하는 것인데, 아동·가족 복지에 목적을 두는 아동·가족학과 그 목적이 부합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가족학은 가정학의 다른 분야

와 비교해 볼 때 초기부터 사회학, 법학, 심리학, 인류학, 가정학, 사회복지학 등과 같은 학문 영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가정학내의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영역보다 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 진다(이정연, 유영주, 1990). 그러므로 가정학 내에서의 아동·가족학의 부각된 위치와 사명을 고찰하면서 「아동·가족학자들이 미래를 향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학문적 사명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동·가족학자의 역할에 대해 현 미국 가족협회는 (NCFR: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다음과 같은 사명을 제창했다.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rovides a forum for family life researchers, educators, and practitioners to share in the development & dissemination of knowledge about families and family relationships, establish professional standards, and works to promote family policies and enhance child & family well-being (Walters, 1991).



<그림 1> 아동·가족학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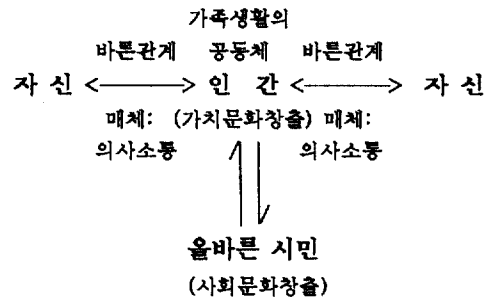
여기에서 제창된 아동·가족학자의 역할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생활에 대한 지식을 개발·전달하고, 전문적 위치를 정립하며, 아동·가족 복지과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소고는 아동·가족학자의 역할을 조명하여 21 세기를 향하여 우리의

공동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아동·가족생활교육자 역할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현대인의 가치관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된 가족생활의 내용과 양식을 정착시켜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생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아동·가족학자의 교육적 역할 수행은 미래의 중요한 사명이다(Curran, 1983; Zimpfer, 1988).

가족생활교육의 목표는 가족생활을 하는 개인이 자아형성을 하고 가족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개인-가족-사회가 상호관계를 원활히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그림 2> 가족생활교육의 목표

개인의 자아형성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과 바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자신의 실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인간과 자기자신과의 바른 관계는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즉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병폐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할 관계이다. 가정에서 인간과 인간이 성숙한 관계를 맺을 때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고무시키는 합리적이고도 성숙한 사고가 일어나는 환경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일어난다. 즉 사고와 감

성의 조화를 발달시키는 대화 속에서 또한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생활을 묶는 대화 속에 바로 합리성의 실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화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지침을 수반하여 인간과 인간의 바른 교류를 맺는 매체가 된다.

현대 사회의 가정과 사회 문제 대부분은 사람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즉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Bakeman & Gottman, 1986; Walters, 1991). 세포가 세포간에 균열이 생기면 생물체가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사회는 인간과 인간사회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자는 어떻게 하면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자신과 다른 가족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가족구성원이 건전한 가족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바른 시민이 되어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가? 에 미래 공동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살펴 보기 위해 현대가족의 양상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Arcus, 1992; Glenn, 1987; Sporakowski, 1993).

<표 1> 현대가족의 양상

현대가족의 장점	현대가족의 취약점
·가족의 지속성 ·가족의 다양성 ·가족의 탄력성	·가족의기능이약화됨 ·가족의 다양한 형태로 인적자원의약화 ·자녀의 사회화에 부모의 영향보다는 대중 매개체나 사회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짐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불분명해짐 ·개인주의에 가치를 두어 가족을 위한 행동보다 개인을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함

1. 가족생활교육의 미래 방향

- (1) 가족생활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2) 가족의 다양한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Curran, 1983; McCubbin & McCubbin, 1988; Stinnett & DeFrain, 1985).
- (3) 경험적으로 실증된 프로그램이나 이론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 (4) 아동과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

- (5) 협동적 관계와 공동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2. 가족생활교육의 내용

Smith와 Ingoldsby(1992)가 500명의 가족생활교육자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교육자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교육을 하지 못하여 그 교육이 비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최근 미국가족협회(Sporakowski, 1993)는 10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미국가족협회(NCFR)가 제안한 아동·가족생활교육의 내용

주요영역	구체적 내용
가족과 사회	·가족과 사회의 상호연관성 ·인구통계학적 변화 ·아동·가족의 사회적 위치 ·도시가족과 농촌가족의 비교 ·아동·가족에 대한 생태학적 모델 ·성역할 ·대중매체와 가족 ·일과 가족
가족의 내적 역동성	·가족역할 ·결혼과 가족 ·건설적 갈등해결 방법 ·가족의 연결력 ·가족관계와 가족세력 ·의사소통 ·개인인 가족의 위기
인간성장발달	·개인인 가족의 발달주기 ·발달단계와 발달업무 ·발달단계와 가정경제
성적발달	·성적가치와 의사결정 ·성적행동과 성적책임
대인관계	·사랑 ·규칙 ·결혼과 가족생활의 갈등과 해결 ·대인관계와 성차(gender difference)
가족자원관리	·가족자원관리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관리 ·가족자원관리의 성차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법과 가족정책	·별거, 이혼, 재혼 ·아동학대 ·독수가족 ·가족체계와 가족법 ·가족복지정책
가족윤리	·가치와 선택
아동·가족생활교육 방법	·아동·가족생활교육 학습자료 ·아동·가족생활교육 교수법 ·아동·가족생활교육자 자격증 ·아동·가족생활교육의 교육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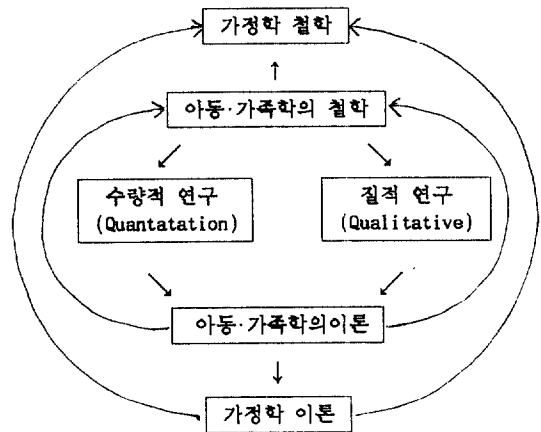
III. 아동·가족학 연구자 역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가족이 어떻게 적응하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는 의문과 탐구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연구과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동·가족의 연구는 가족생활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가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현대 가족생활을 반영하는 교과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족치료자들이 치료방법이나 치료이론을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적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이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계적 이론은 가족생활에서 남편의 권력 차이나 부모 자녀간의 권력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는데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1 세기에는 좀 더 건강하고, 양육적이고, 안정된 가족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성, 친밀한 관계, 가족의 상호작용(친밀한 성인관계, 자녀/부모 관계, 친족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은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담이나 치료를 이끌 수 있는 기본 가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또 아동·가족복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최근 연구에 의존해야 한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은 이론적 배경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학문의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 이론의 구축은 아동·가족의 연구분석에 있어 현재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통합하는데 또한 미래 연구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가족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경험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Gilgun, Daly & Handel, 1992; Guerney & Maxson, 1990). 즉,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가족생활의 내용을 관찰하고 그 과정

을 이해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새로운 이론의 형성에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아동·가족문제를 묘사하고 분리할 수 있는 분석적 방법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Douglas, 1985). 수량적 방법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는 아동·가족생활의 복잡한 사건이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는데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방향은 심층적 연구방법인 수량적 연구의 통합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두 연구 방법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을 구축할 수 있고 기존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문의 철학적 배경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3>.



<그림 3> 아동·가족학의 연구방향

IV. 아동·가족 상담과 복지실무 담당자 역할

아동·가족학자는 가족을 강화시키고 현대 가족의 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아동·가족복지를 위한 사회적 봉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미시적 접근방법은 아동·가족의 내적문제에 관여하여 상담자나 치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거시적 접근방법은 아동·가족의 외적문제에 관여하여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Fish & Osborn, 1992).

궁극적으로 아동·가족학자의 실무담당자 역

할은 가족생활을 하는 개인과 가족구성원을 사회와 어떻게 상호연관성을 가지게 하는가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담당자의 미래방향이나 내용은 사회변화와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 실무담당자의 미래 방향

아동·가족학의 실무담당자의 미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영역에서 고찰될 수 있다(Rambo, Heath & Chenail, 1993: sprenkle & Piercy, 1992: Thomas, 1990).

- (1) 상담이론의 재정립
- (2)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대화와 협동작업을 통한 상담
- (3)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아동·가족 상담과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립
- (4) 가족자원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복지정책
- (5)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상담과 복지 정책

2. 내용

(1) 실무담당자의 미시적 접근 내용

실무담당자의 미시적 접근내용은 가족의 의사소통이나 가족간의 상호작용 과정, 또한 가족의 결합력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주로 상담이나 치료영역이 이에 속한다. Fish와 Osborn (1992)이 델피연구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상담·치료 실무자들은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가족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거나, 가치관을 확립시키거나, 대처방안을 기르게 하거나, 가족간에 서로를 도와 줄수 있도록 하거나, 변화하는 사회속에서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시킴으로써 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봉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표 3>.

(2) 실무담당자의 거시적 접근내용

실무담당자는 또한 거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가족을 강화시키고 현대가족이 처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데 주로 전문적 활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족상담이나 치료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높이거나 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회적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Wisensale, 1992).

Fish와 Osborn이(1992) 조사한 실무담당자의 거시적 접근내용은<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3> 실무담당자의 미시적 접근 내용

-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킨다.
- 가족의 상호작용과정 (의사소통이나 가치관 확립 등) 증진시킨다.
- 가족관계의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가족구성원인 개개인이 가족에 대한 헌신성과 상호의존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가족간의 세대차를 줄이고 세대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의 대처방안을 명시하여 가족위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의 응집력을 기르게 한다.
- 외부적 압력으로 인한 가족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자원을 강화시키고 가족의 내적 문제와 분리시켜 대처하게 한다.
- 대중매체나 상업적인 가치가 아니라 가족의 가치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킨다.
- 자신의 가족을 대변할 수 있게 한다.
- 내담자 개인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으로 보게 한다.
- 가족관계와 인간발달에 관해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한다.
- 치료적 개입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의 가족치료를 한다.
- 심리교육의 역할과 상담역할을 한다.

<표 4> 실무담당자의 거시적 접근 내용

- 가족치료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높인다.
- 가족치료의 수용도를 증가시킨다.
- 가족치료자간의 (학파나 학회간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가족의 새로운 현실적 문제에 기존의 모델을 적용시킨다.
- 가족치료의 자원적 모델을 개발한다.
- 가족이나 개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않는다.
- 가족치료이론의 개발에 사회적 문제를 개입시킨다.
- 가족치료가 내담자의 일에 대한 수행력을 얼마나 증진시키고, 의료비용을 얼마나 감소시키며, 정신적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도록 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 (중, 상, 하) 있는 가족을 위하여 일한다.
- 복지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 공공영역에서 가족을 옹호한다.
- 아동보호에 (탁아소문제 등과 같은) 관여된 정부 정책결정에 개입한다.

V. 결론

시대적 조류에 따라 학문적 영역의 방향과 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동·가족 학자들은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또한 실무 담당자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가족학의 미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역할의 방향과 양상을 어디에 두는가, 또한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이 어떻게 모아지는가에 달려있다.

더우기 현재 한국의 대학은 국제화와 개방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학자들의 세가지 근본역할-교육자, 연구자, 실무담당자-에 대한 사명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소고는 아동·가족학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학문의 부각된 위치와 사명을 고찰하고 미래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가족학자들은 가족생활 교육자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자신과 다른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하여 건전한 가족생활문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수량적 연구와 심층적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가족생활의 현상과 과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이론의 틀을 구축하며, 기존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의 역할에도 미래 방향이 모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가족학자는 상담·치료와 복지의 실무담당자로서 아동·가족을 위한 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아동·가족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역할에 공동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이정연·유영주(1990). 가족연구의 역사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14.
- 조복희(1986). 아동·가족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 대한가정학회지, 24(2), 172-173.
- Arcus, M.E. (1992). Family Life Education: Toward the 21st century. *Family Relations*, 41, 90-393.
- Bakeman, R., & Gottman, J.M. (1986). *Observing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ado, F.M. (1987). The American family: A commentary. *Journal of Family Issues*, 8, 426-428.
- Bronfenbrenner, U. (1988). *Interacting systems in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radigms: Present and future*. In N.Bolger, A. Caspi, G. Downey, and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es*.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rran, D. (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nneapolis, MN: Winston Press.
- Douglas, J.D. (1985). *Creative Interviewing*. Beverly Hills: Sage.
- Fuchs, V.R., & Reklis, D.M. (1992). *America's children: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options*. *Science*, 255, 41-46.
- Gilgun, J.F., Daly, K., & Handel, G. (1992).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Sage Publications.
- Glenn, N.D. (1987). Continuity versus change, sanguineness versus concern: View of the American family in the late 1980s. *Journal of Family Issues*, 8, 348-354.
- Guerney, B., & Maxson, P. (1990). Marital and family enrichment research: A decade review and look ahe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127-1135.
- McCubbin, H.I., & McCubbin, M.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Rambo, A.H., Heath, A., & Chenail, R.J. (1993). *Practicing therapy: Exercises for growing therapists*. W.W. Norton & Company.
- Smith, S., & Ingoldsby, B. (1992).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Educating*

- students for diversity. *Family Relations*, 41, 25-30.
- Sporakowski, M.J. (1993). Family life education teacher's kit.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altions.
- Sprenkle, D.H., & Piercy, F.P. (1992). A family therapy informed 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family in the United States. *Family Relations*, 41, 404-408.
- Stinnett, N., & DeF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MA: Little, Brown.
- Thomas, R.M. (1990). *Counseling and life-span development*. Sage Publications.
- Zimpfer, D.G.(1988). Marriage enrichment program: A review. *Journal of Specialists in Group Work* 13: 44-53.